

##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이문웅\*\*

이 연구는 지금까지 바깥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총련 사회를 대상으로 생활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류학적인 탐구를 시도하였다. 아직 조총련 사회는 바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 연구자는 조총련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자료원을 찾아서 넓게 흩어져있는 자료들을 가능한대로 한데 모아 조총련 사회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에 걸쳐서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988년에는 연구자가 이미 1년간 오사카의 동포 밀집지역인 이쿠노구(生野區)에서 재일동포의 문화집변 현상을 주제로 현지조사를 한 바 있기에 이 지역의 동포 사회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은 아니었다. 금번의 현지조사에서도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총련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총련 사회가 재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가 교육기관이라고 보고, 조선학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연구자는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는 한 조선 초급학교의 허락을 받아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일본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총련계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후자를 전자의 더 넓은 사회로부터 구분 짓는 문화

\* 이 논문은 2001년도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비(한국학 장기 기초연구)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공동연구 '총련사회의 공동체적 성격과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지속과 변화(연구기간: 2001. 7.~2002. 8.)'의 결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mlee95@snu.ac.kr

적인 경계가 필수적이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하나의 통합된 민족 집단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데에 기여한 기제로서의 분회조직 및 분회활동, 그리고 민족운동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민족교육과 민족결혼에 초점을 모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점차 총련의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총련은 이들의 이탈을 억제할만한 대안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분회사업들은 총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강화운동을 벌여왔다.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지금까지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총련 조직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은 거의 모두가 조선학교들에서 민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조선학교가 있었기에 총련 사람들이 우리말을 그나마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더 넓게는 민족문화를 이 정도로 이어 갈 수 있었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민족결혼의 이상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점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국 민족운동이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일동포 1세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의 결혼관 사이에 점차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1세대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본 태생의 젊은 세대는 결혼에서만은 굳이 '민족'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 1. 머리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각자 살고 싶은 곳으로 옮겨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민족의 이동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주를 허용할 자격과 근거를 가졌는지를 따진다. 때로는 국가의 차원에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부적인 수요를 충당한다. 식민지 시대에 식민 당국이 내부 산업의 필요에 따라 식민지로부터 많은 인력을 끌어

들어오는 것이 이런 예에 속한다.

더 좋은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해가는 인구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대체로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있어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식의 이주가 흔히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 정책은 식민지 민족을 지배자의 사회정치 체계 속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상으로도 식민지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물론 식민지로부터의 인구 이입은 자발적인 것만이 아니다. 산업 부문의 수요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동원에 의해서 연행되었다가 식민체제가 종료된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한 민족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의 이유가 무엇이든 일제 시대에 일본에는 적어도 200만이 훨씬 넘는 한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과 함께 그들 중 대부분은 본국으로 귀환하였지만, 약 60만에서 70만 정도의 한인들은 일본에 그대로 남아서 오늘의 한인사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인사회는 모국의 분단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비록 재일 한인들의 대다수가 남한 출신이었지만, 일제 말기 및 그 후 50년대, 60년대 일본의 지식인 사회를 휩쓸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재일 한인사회는 각기 남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두 쪽으로, 더 정확하게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무국적으로 남는 사람들과 함께 세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수적으로는 세 쪽이 거의 비등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닦아 왔다.

일본의 한인사회는 조국의 남쪽과 북쪽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재일한국인’ 또는 ‘재일조선인’으로 불려졌기에 이 양자와 무국적의 한인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자들간에 ‘재일 코리안’이라는 명칭을 쓰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는 아예 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은 채 재일(在日)의 일본식 발음인 ‘자이니치(Jainichi)’라는 용어로 재일 한인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특히 언론계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편향된 명칭을 피하기 위해서 ‘재일한국조선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일동포로 불려지고 있는 일본 속의 코리안 사회는 무국적의 한인을 제외하고는 한국 국적의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과 조선 국적의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분단된 한국의 상황이 그대로 재일동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남쪽의 민단과 북쪽의 총련이라는 이원적인 체제가 이미 반세기를 넘기면서 굳어져 왔다. 여기서 조선 국적이라는 것은 약간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다. 해방과 함께 1945년 10월에 결성된 첫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조선인련맹](약칭 '조련')이었다.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모두 일본이었지만,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는 조선 국적이 부여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남쪽의 대한민국도 생기기 전이었기에 이때의 '조선'이란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였을 뿐이다. 그 후에 1948년에 남북에 각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었고, 1965년에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정식으로 국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은 북한과 수교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에 조선 국적으로 남아 있는 재일동포는 단지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의미의 기호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는 무국적자인 셈이다. 따라서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상당수가 총련에 소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단과 총련 그 어느 쪽에도 소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민족의 근원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 국적'이 곧 '총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일단 국적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모두 재일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조의성(1997~1999)은 재일동포라는 용어를 '해방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속 일본에 사는 조선인 및 그 후손들'에 국한하면서, 해방 후에 일본에 유학가서 그대로 거기서 취직을 한 사람을 '체류조선인'으로, 그리고 재일동포나 일본사람과 결혼한 한국인이 일본에 정착한 경우에는 '뉴카머(new comer)'로 부르고 있다.<sup>1)</sup> 이 '뉴카머'의 경우에는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결혼, 유학 이외에도 최근에는 취업 및 파견근무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무려 1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바, 이들을 중심으로 제3의 단

1) <http://www.tufs.ac.jp/ts/personal/choes/etc/jaeil/Nindex.html>

체인 [재일한국인연합회](약칭 '재일한인회'<sup>2)</sup>)가 2001년에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위의 '재일동포'와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문화적인 성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여러 범주의 한인들 중 총련계만은 강한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바깥 세계에 거의 열려 있지 않아서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의 재외공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총련이 자본주의 경제대국인 일본 안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민족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경계나 벽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자기 집단 내부와 바깥의 경계가 느슨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재일동포 중에는 일본인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일본식의 이름(通名)을 가지고 일본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업 이외에는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조총련의 경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조선 민족으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집착력이 결국 일본 사회 안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조총련 사회의 문화과정,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바깥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조총련 사회의 폐쇄성은 바깥으로부터의 연구 또는 탐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사회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조총련 사회의 폐쇄성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반세기의 역사를 넘기면서 총련의 제1세대가 점차로 무대에서 사라지고, 제2세대와 제3세대가 정면에 나서면서 '북조선의 재외공민'으로 살아간다는 이념적인 집착보다는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적인 생활태도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면서 조총련 사회는 지금 전환기의 진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지상낙원으로 찾아간다"면서 떠난 북송동포들의 참담한 생활실태가 점차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 같다.<sup>3)</sup>

이 연구는 지금까지 바깥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총련 사회를 대상으로 생활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류학적인 탐구를 시도하였다. 아직 조총련 사

2) 재일한인회 홈페이지: <http://www.haninhe.com/>

3) '북조선귀환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 7월까지 187차에 걸쳐서 총 93,340명의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 아내들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회는 바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구자는 조총련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자료원을 찾아서 넓게 흩어져있는 자료들을 가능한대로 한데 모아 조총련 사회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한정된 제보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려는 바람은 남쪽에서 온 연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총련 사람들 및 과거 총련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고, 이런 기회를 포착하여 생활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조총련의 공식 홈페이지<sup>4)</sup> 및 관련 사이트에 실려 있는 생활관련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 물론 이런 공식적인 자료들은 총련을 잘 포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침으로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은 총련 사회의 내부적인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또한 총련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여 조직 채널을 통해서 배부하는 『총련 비디오』 시리즈의 생활관련 코너에서도 총련 사회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비디오 시리즈에는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나 총련의 조직 활동에 대한 소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회활동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부적인 사정을 담은 영상자료가 적지 않아서 귀중한 자료원이 되었다. 『총련 비디오』 시리즈는 매년 1월과 6월경 두 차례에 각기 한 시간 길이 테이프 한 개 분량으로 제작하여 총련의 조직 채널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다. 각 지방의 총련 지부나 말단의 분회조직을 통해서 거의 모든 총련 사람들이 이 비디오 시리즈를 접하고 있기에 사실상 총련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에 귀중한 미디어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에 걸쳐서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988년에는 연구자가 이미 1년간 오사카의 동포 밀집지역인 이쿠노구(生野區)에서 재일동포의 문화접변 현상을 주제로 현지조사를 한 바 있기에 이 지역의 동포 사회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은 아니었다. 이때의 관찰대상은 전적으로 민단계의 동포 사회였고, 당시에는 총련계의 동포 사회

4) <http://www.chongryon.com/>

에 대한 정보는 단지 간접적이고 극히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1988년의 현지 조사 이래로 지난 10여 년간 연구자는 매년 적어도 한번씩은 이 지역을 방문하였고, 이 지역의 한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금번의 현지조사에서도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총련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총련 사회가 재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institution) 중의 하나가 교육기관이라고 보고, 조선학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연구자는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는 한 조선 초급학교의 허락을 받아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접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교실 수업도 자유롭게 참관하고 비디오로 현장을 촬영할 수 있었다. 교외로 나가는 사회탐험 시간에도 동행했었고, 예술 공연 연습 과정과 공연행사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련 비디오』시리즈도 볼 수 있는 등 학교 당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기에 학교 교육과 관련한 귀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조선초급학교에서의 현지조사는 그 후에도 오사카를 방문할 때마다 하루 또는 이틀씩 단기간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자료의 확인 과정을 계속해왔고, 이런 작업은 2003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 2. 재일조선인의 사회조직: 분회생활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조직생활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련계 재일조선인은 북한의 '채외공민'임을 표방하고 있어서, 이들이 호스트 사회인 일본에서 총련계 재일조선인으로 살아남는 데에는 조직생활은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다. 물론 재일조선인들은 그들만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본에서 살고 있기에 일본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사람들과의 접촉, 바꾸어 말해서 일본

문화와의 접촉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생활환경에서 그나마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하나의 사회단위로 묶어내는 조직생활 때문이었던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사회조직을 유지하는 데에 바탕을 제공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일본이라는 더 넓은 사회단위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민족집단으로서의 총련계 조선인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네트워크로 우리는 '분회(分會)' 라는 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재일조선인들을 지역 단위로 묶은 단위로, 총련의 모든 조직생활이 이 분회를 단위로 전개된다. 따라서 모든 총련계 재일조선인은 일단 어느 하나의 거주지역 분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중 아직 이런 분회의 구성원으로 포섭되지 않은 사람은 '미조직동포'로 불리면서 총련 조직 일꾼들의 집중적인 공략대상이 된다.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의 일상생활 중 거의 대부분은 분회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조선인들 중 더러는 생업활동이 총련 조직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총련계를 제외한 재일동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총련 조직과는 무관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분회활동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제 이 분회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 1) 분회의 조직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단 적(籍)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직 또는 조직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민단 본부나 지부로부터 사회생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섭도 받지 않고, 또 민단을 중심으로 뭉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러나 총련계 조선인 사회에서는 조직 및 조직사업은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간의 역할을 하는 기체



이다. 이 조직이 만약 느슨해진다면 사회문화체계(sociocultural system)로서의 총련은 일본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그들만의 단합된 네트워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일본인 사회에 각기 독립된 개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총련이라는 조직은 명목상의 사회정치적인 조직으로만 남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총련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비하여 총련 조직사업의 가장 일선에서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는 것이 '분회'와 '분회사업'인 것이다. 한 일선 분회장의 말은 분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다: “각 동포 집집을 몸의 세포라고 한다면 분회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의 피를 활발히 흐르게 하는 강한 심장을 꾸려나가겠습니다(『조선신보』 2002/8/30).” 또 같은 분회장은 다른 기회에 이상적인 분회상은 “분회가 ‘요람부터 묘지까지’의 한가족, 화목한 동포사회가 되는 것(『조선신보』 2002/10/4)”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분회를 심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세포에 비유한 재일조선인 동포 각 집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제로 파악될 정도로 총련 체계를 유지하는 중추적인 기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분회의 구성원들은 요람에서부터 묘지까지 한가족으로 남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에서도 총련이 체제 유지를 위해 분회사업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분회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을까? 우선 총련에서 분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총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총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진정한 정권으로서 지지하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인 주체사상을 자기 조직의 지도 리념, 모든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있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듯 총련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동포의 단체 그 이상의 것이다.

총련은 일본 전국에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행정조직 단위인 도도부현(都道府縣)마다 지방분부를 두고 있다. 단 도쿄도에는 도쿄도본부와 니시도쿄본부의 2개 지방분부를 두고 있어서, 현재는 일본 전국에 48개의 지방분부가 있다. 지방분부는 총련 중앙의 결정과 방침을 자기 지역에서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관하의 단체들과 조선신용조합, 금강보험 등의 사업체, 민족학교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분부는 각종 민족운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서 각계각층 동포들을 단결시키고 민족교육의 발전과 제반 권리의 옹호, 조국통일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단위이다.

총련의 지방본부들은 다시 해당지역을 구분하여 지부를 두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 약 280개의 지부가 있는데, 이 지부는 총련의 말단 지도기관으로, 최고결의기관은 지부대회(총회)이다. 지부는 동포들의 생활과 직결된 분회의 사업을 관할하여 상공회, 조청, 녀성동맹, 학교 등을 지도하고 있다.

지방본부의 지부는 다시 거주지역 단위로 여러 개의 분회를 두고 있다. 분회는 총련의 기층조직으로 “동포들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생활을 누리며 애국애족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직접적인 실천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총련 산하에 일본 전국에 1,300여개의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련의 구성원이 비교적 많고, 조직생활이 활발한 대도시에서는 몇 개의 분회를 묶어서 ‘블록’(block)로 관리하기도 한다. 예컨대 오사카의 경우 2002년 가을에 예정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02]를 독려하기 위해 분회단위의 ‘애국애족분회창조운동’을 추진하고자 총련 오사카(大阪)부 본부 지부 상임들과 분회장들의 모임이 生野, 東大阪, 中大阪, 北大阪, 南大阪의 5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른 날에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조선신보』 2002/4/1). 이쿠노(生野)구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총련계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기에 분회조직이 많아서 하나의 블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분회에는 총련 회원들로 구성된 분회총회가 있고, 총회에서는 분회위원들을 선출하여 활동계획을 세운다. 분회위원회는 분회장, 고문, 부분회장, 분회위원, 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회의 구성 단위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집이다. 하나의 분회가 몇 집으로 구성되는지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2) 분회사업

사실 분회의 조직과 활동은 총련이 생존전략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분회를 ‘심장’에 비유했듯이 총련계 제일조선인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회활동이 조직의 단합과 활성화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

나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회의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즉 분회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회사업의 영역을 알아보는 것은 이 분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전역의 모든 분회가 각기 분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분회는 지부내의 다른 분회들과 경쟁하고, 지부는 지역본부내의 다른 지부들과 경쟁한다. 또한 지역본부들은 총련 중앙본부 내에서 서로간 분회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부는 전임 일군들을 두고 있어서, 이들 전임 일군들이 각 분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회장 및 분회위원들과 협력하여 분회사업을 독려하게 된다.

각 지역본부는 분회 대표자들의 리더십이 성공적인 분회사업을 이끌어내는 열쇠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각종 프로파간다 채널을 통해서 전체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에 결코 인색하지 않다. 사실 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에는 매 호에 분회장들의 분회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현장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회사업과 관련된 갖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전제로 종합되면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등의 역동적인 민족과정이 전개된다.

각 지역본부별로 별리는 [총련분회대표자대회]는 분회사업이 어떠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무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총련 오사카부본부에서는 가을에 열리는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02]를 대비하여 분회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참고자료는 분회사업의 목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기에 여기에 직접 인용해본다(『조선신보』 2002/4/1).

#### 분회사업을 잘 하기 위한 참고자료:

1. 변화된 현실과 실정에 맞게 분회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
2. 새 세기 분회의 모습(면모)
  - 자료 1(동포생활 상담 부문)
    - 1)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하여

- 2) 취직알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 3) 동포 고령자와 동포 장애자를 위한 사업
- 4) 조국 방문 사업에 대하여(〔아리랑〕축제)
- 5) 해외여행에 대하여

— 자료 2(자녀교육문제부문)

- 1) 학생, 원아 받아들이는 사업
- 2) 자녀들을 건전한 민족인재로
- 3) 학교 사랑하는 운동
- 4) 학교조성금, 교육권 확충을 위한 사업

— 자료 3(문화선전부문)

- 1)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활동
- 2) 각종 문화 교실과 우리말 교실
- 3) 『조선신보』, 《이어6》보급과 활용 사업 「조선신보」, 「이어」<sup>6)</sup> 보급과 활동사업

— 자료 4(대외부문)

— 자료 5(조국통일과 조국지원부문)

— 자료 6(분회위원회와 분회학습부문)

위의 참고자료는 분회사업이 실로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의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폭 넓게 전개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료 1, 2, 3]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들은 동포들의 결혼, 취직, 고령자의 개호문제, 민족교육문제, 각종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 등 동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조국방문사업’이나 ‘조국지원부문’과 같은 대북지원 사업들

---

6) 조선신보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은 분회사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자녀교육의 문제나, 민족 집단의 성원을 충원하는 자녀결혼의 문제, 그리고 취업을 앞선하는 등의 분회사업은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응집력을 다지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3) 분회 강화 운동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의 키워드는 ‘민족’이다. 일본사회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보람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제2차적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공화국의 재외공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가 두 세대를 넘기면서, 초기의 고난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제1세대가 점차로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총

〈표 1〉 (분회강화 100점 운동) 사업내용: 1993년도

사업 항목		점수
1	중매 결혼 성립	선보기 30 10
2	동포생활 상담(1건) 해결	10
3	학생, 원아 받아들이면, 보내면	50
4	신보, 시보, 화보, 평론, 조국확대	10
5	朝銀 거래자 확대	신규 거래자 소개 정기예금, 적금 소개 10 5
6	금강보험 거래자 확대	신규거래자소개 기타 (?) (?)
7	분회강화	(?)
8	각종 모임(분회 위원회, 회의)	(?)
9	문화, 체육, 활동	(?)
10	래왕자	(?)
11	편지	(?)
12	회고록	(?)

자료: 『총련 비디오』 시리즈, 93-9

런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즉 지난 시절의 고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간에는 감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인민의 낙원'으로 상정했던 공화국의 이미지가 점차로 금이 가고, 그 '낙원'으로 찾아갔던 북송동포들의 고생담이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알려질 뿐만 아니라, 북으로 간 동포들이 마치 인질로 잡혀있듯이 일본에 남아 있는 가족 및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조차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자란 젊은 세대에게 총련은 점차로 신뢰감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극심했던 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해도 민단과 총련이 수적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점차 많은 조선인들이 총련 조직을 빠져나가고, 총련의 차세대 양성기관인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일본학교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의 구성원들도 88년도 서울 올림픽 기간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남쪽의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던 점도 크게 기여한 것 같다. 이런 사회적 인 상황에서 총련 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분회활동의 활성화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각 지부에서 갖가지의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총련 비디오』 시리즈에 담겨있는 동포생활에 관한 르뽀 프로그램에는 이런 분회활동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그 중 큐슈의 북부 기타큐슈(北九州)시에 있는 고쿠라(小倉)지부의 분회활동은 분회사업의 내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기타큐슈시에는 4,000여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총련계 조선인들이 여러 개의 분회로 나누어져 있다. 총련 고쿠라지부의 분회들간에는 [분회강화 100점 운동]이라는 경쟁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분회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총련 비디오』 시리즈(93-9)의 르뽀는 전하고 있다. 이 르뽀에 소개된 1993년도 [분회강화 100점 운동]의 사업내용을 여기에 옮겨보기로 하자:

위의 사업항목 중 아래쪽의 7개 항목은 화면이 가려서 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업항목들은 분회원들의 생업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분회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모든 항목들이 분회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총련계 조선인 사회의 차세대 충원이 분회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이다. 즉 사업항목별로 얻

〈표 2〉 (분회강화 100점 운동) 제3차 경쟁의 평가 기준

항목		구체적인 사업 항목	점수
1	결혼문제	카드 작성	5
		선보기	30
		결혼 성립	50
2	생활상담	정보 수집-정보 인계	5
3	교육문제	학생/원아를 받아들임/ 보냄	50
		학교를 돕는 일(1건/1인당)	20
		가극반	2
		광고(1만엔) 티켓(1매)	2
4	민족성·단결 문제	회원 확대(단체 포함)	15
		각종학습/모임 참가(1번)	5
		문예/체육 소조 참가(1번)	5
		『조선신보』 거래자 확대(1건)	15
		금강보험 신규 거래자 확대(1건)	15
		잔치/조상을 도와주면(음식준비, 기타)	10
5	대외사업	분회 단위 각종 발표 모임(분회 점수)	50
		각종 형태의 요청된 행동에 참가	5
6	조국통일 사업	편지	3
		내왕자	10

자료: 총련 고쿠라지부 제공(2003년 1월)

을 수 있는 점수로 봐서 조선학교에 학생 한명을 새로 끌어들이는 데에 50점을 주고 있고, 민족결혼 한 쌍을 성사시키는 데에 30점을 주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차세대를 충원하는 문제이다. 젊은 세대가 점차 배우자 선택에서 '민족'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점과, 조선학교를 외면한 채 일본학교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총련 체제 그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배우자 선택은 이미 당사자들이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만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이지만, 자녀교육은 아직 부모들의 의사 및 판단에 달렸기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분회의 성과를 사업항목별로 점검하여 점수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하는 것이 고쿠라지부의 분회강화를

위한 캠페인이다.

위의 1993년도 [분회강화 100점 운동] 사업 내용표는 총련 비디오 시리즈에서 포착된 것으로 사업항목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화면이 가려서 점수를 전체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2003년 1월에 다시 추가조사를 위해 조사지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간접적으로 총련 고쿠라지부에 연락해서 점수를 알 수 없었던 항목의 숫자를 채워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최근의 [분회강화 100점 운동] 제3차 경쟁의 평가 기준은 이전의 것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993년의 평가기준에서 가장 높게 매겨졌던 조선학교의 학생 충원에 더해서 최근의 [분회강화 100점 운동]은 '결혼성립'과 '분회단위의 대외사업'에 대해서도 각기 50점씩을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총련 조직이 최근에 들어와서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결혼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성립'뿐만 아니라, '선보기'가 20점이 더 올라서 30점으로 늘었고, 여기에 배우자감을 찾는 '카드 작성' 5점까지 더해져서 총 85점에 이를 정도로 총련 구성원끼리의 결혼을 촉진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조선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교를 돕는 등의 총련 조직의 재생산에 총 74점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조총련의 금융기관이었던 신용조합 조은(朝銀)의 거래자를 확보하는 사업이 최근의 평가기준에서 사라지고 만 것은 최근 거품경제의 여파로 조은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하겠다. 여하튼 [분회강화 100점 운동]은 총련의 조직을 강화하면서 총련 사회에 활력을 집어넣으려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아울러서 [분회강화 100점 운동]이 추진되는 일정을 보면 실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위의 3차 경쟁의 경우 총련 고쿠라지부에서는 3월 12일부터 4월 7일에 걸쳐서 '분회 단위의 토론'을 벌였고, 그 다음 날인 4월 8일에 '합동 분회장 모임'을 열어서 각 분회의 사업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지부 단위의 분회강화 운동에 대해서 토의했다고 한다. 이어서 5월 20일에는 전체 분회원들이 궐기 모임을 갖고 11월 20일까지의 장장 6개월에 걸친 [분회강화 100점 운동] 경쟁에 들어갔다. 또한 12월 3일에는 이 운동을 총화하는 전체 모임을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해의 운동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총련 비디오 시리즈에 나타난 바의 총화를 위한 전체 모임은 그 자



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물론 이 운동은 경쟁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단합을 다지고 총련이 하나의 민족 커뮤니티임을 재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장치는 현대 일본 사회 안에서 총련 조직이 점차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할만하다.

총련계 조선인의 경우에는 총련의 조직 및 사업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히 많다. 따라서 생업활동과 분회활동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총련 비디오』 시리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예컨대 바로 위의 르뽐에서도 한 분회장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빠짱고 사업체에서 시간의 틈만 나면 분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업을 독려하든가 만날 약속을 한다. 또 만날 때에는 가능하면 분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나 회원들간에 상부상조의 유대를 다지는 등의 전략을 구사한다. 동포식당을 만남의 장소 또는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한데 묶어서 민족 집단의 유대강화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일석이조의 이점을 살리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사실 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은 도처에서 갖가지의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아마도 공통분모는 ‘동포방문사업’인 것 같다. 총련 아이찌지부의 [우리분회 한동네 자랑운동]과 총련 사이다마지부의 [우리분회, 반 자랑운동]에서도 이런 전략이 분명하게 흘러나고 있다(『조선신보』 2002/3/20). 아이찌의 경우에는 기성세대는 2선으로 물러나고 젊은 새 세대로 분회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여 매달 한 번씩 정상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이런 다짐과 함께 앞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동포들을 찾아가자! 만나자! 이야기하자!]는 구호아래 동포방문사업을 강력히 벌릴 결의를 다졌다고 하는 바 이는 분회사업이 동포의 집을 방문하여 의논하고 설득하는 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조선학교와 아동교실에 보낼 것, 위기에 직면한 총련계 제2금융기관 조은(朝銀)을 지키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총련 중앙본부의 명령을 하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총련 비디오』 시리즈에서도 분회위원들이 4~5명씩 무리를 이루어 저녁시간에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각종 정보지 및 전단지를 전하고,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학습도 하고, 회원들이 당면

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의논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이다마지부의 [우리분회, 반 자랑운동]에서도 관내의 2,200호 동포방문사업을 통해서 2002년에는 과반수의 동포들을 '애국애족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 세울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분회가 지역사회를 기초로 조직되어있기는 하지만, 동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대로 일상생활에서 대면적인 접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잦은 접촉은 사실상 힘들다. 이들을 엮어서 분회라는 하나의 동포집단으로 조직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회활성화 캠페인에서는 분회가 '한동네'가 될 것을 목표로 하는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총련 가나가와현의 분회장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전원일치로 채택한 [화목한 동포동네 창조운동](『조선신보』 2002/7/15)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회를 "동포애로 땀어지고 민족성과 상부상조의 기풍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동포동네"로 꾸리는 것을 이 운동의 목표로 설정했다. 때로는 지바현의 지부일군들과 분회장들의 캠페인에서와 같이 철저한 '5호 담당체계'와 분회의 '년령별 런락망'을 꾸리고 서로 합심하여 분회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사례(『조선신보』2002/3/27)까지 등장할 정도로 분회 사업은 총련계 제일조선인 사회를 지탱하는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각 분회는 비록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기는 하지만 탄탄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마치 '한동네'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분회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략이다. 분회들이 흔히 기획하는 야외모임은 바다모임, 강놀이 모임, 온천여행 등이다.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회원 가족들이 함께 대자연을 즐기면서 대면적인 접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총련 지바현의 서부지부 나라시노(習志野) 분회에서는 매년 꽃놀이, 경로모임, 송년회를 3대 분회 행사로 거행하는 데, 여기에는 각기 100명 정도의 동포가 참가한다고 한다(『조선신보』 2002/3/27). 이 분회에서도 젊은 세대의 동포들이 이런 민족모임에 점차 관심이 적어지고 있고, 연례적인 행사에 같은 동포만이 참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많은 동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마당으로 분회행사를 운영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러는 민단과 총련의 벽이 두텁지 않아서 양자가 합동으로 행사를 벌이는 사례가 최근에는 몇몇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적어도 멤버십의 측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있는 총련이 약간 조직의 유연성을 내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총련 아까시지부의 니시아까시 분회는 2001년도에 민단과 합동으로 꽃놀이 행사를 가진 바 있다고 한다(『조선신보』 2002/1/23). 연구자는 민단계의 재일동포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던 1988년에 오사카성(大阪城)에서 벌어진 꽃놀이 행사가 민단과 총련에서 같은 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별도로 개최되었던 것을 관찰한 바 있다. 그 때 양쪽이 각기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던 것을 생각하면 최근에는 양자간의 관계가 훨씬 개선된 것 같다.

분회조직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역시 동포들이 생활과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기관으로서 [동포생활상담종합센터]가 일본 각지의 지부 레벨에서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동포들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서 컴퓨터 교실, 문화소조 등의 각종문화 예술 행사들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더러는 이 센터가 정보지를 발간하여 지역밀착의 정보교환을 위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사이다마지부의 [서부동포생활상담종합센터]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생활정보지 [상봉]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만하다(『조선신보』2001/6/6). 이는 동포참가형의 지역밀착 정보지로서 이를 통해서 지역 동포 사회의 움직임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동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 소식을 보도해 줌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이런 장치들은 모두 총련계 조선인들을 민족 집단의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이어 한 덩어리로 묶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4) 분회와 민족교육

분회는 총련의 기층조직이기에 총련의 차세대를 양성하는 민족교육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앞서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분회는 일반적으로 '우리학교'로

통칭되고 있는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충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벌인다. 일본 전국에 그 많은 조선학교들이 과거에는 성시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텅텅 비어있을 정도이다. 이제 학교마다 한 학급에 10명 남짓할 정도이고, 그나마도 각 학년에 학급의 수는 대폭 축소되었다. 연구자는 현지조사과정에서 현재 조선학교는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실감하였다.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조선학교들의 통폐합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점차 더 멀어지고, 학생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는 더 증가되기 마련이다. 이런 요인들이 조선학교의 민족교육 환경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총련 조직의 리더십이나 기성세대 대부분이 조선학교 출신이기에 민족교육은 더욱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자녀들을 민족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일본학교에 보낼 것인가는 자녀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어느 쪽을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식을 일본학교에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민족학교에 보내도록 권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민족학교의 충원문제에서는 대체로 열성 일꾼들이 앞장서서 사업에 나선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민족학교를 돕는 일에는 모든 총련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

일본 전역에서 분회가 앞장서서 지역의 민족학교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은 모든 선전 및 보도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된다. 이런 일에는 언제나 민족교육을 살린다는 명분이 앞선다. 2002년 6월에 오사카부 이쿠노서지부의 미유키모리(御幸森) 조선시장 분회에서 오사카 조선 제4초급학교에 300만 엔을 회사한 사례에서도 “민족성 고수의 거점 우리학교 지키자”는 명분이 내세워졌었다. 이 돈은 분회가 지난 20여년 간에 걸쳐 분회사무소를 남에게 빌려주어 얻은 임대료 수입이었다. 분회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이 돈을 학교에 회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분회에서는 이전에도 50만 엔 상당의 피아노를 회사한 것을 비롯하여, 12년 전에는 학교 버스 구입비의 일부로 200만 엔을 회사한 바 있다고 한다(『조선신보』 2002/6/28). 여맹 도쿄 아라카와지부 학교 제1분회에서도 수십 년 동안 1세 동포를 비롯하여 2세, 3세 동포녀성들이 대를 이어 푼푼이 모은 분회비 30만 엔을 도쿄 조선 제1초중급학교 교실용 난로를 구입하는데 보태라고 회사했다(『조선신보』 2002/1/16)고 한다. 이런 식으로 분회원들은 많은 경우 자신들

이 다녔던 학교이고 또 현재 자신들의 후세대가 다니고 있는 지역 조선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점차로 젊은 세대가 이런 민족교육을 외면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되돌리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 3.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

현재의 총련계 조선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민족교육을 손꼽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는 일본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에 그 자체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일본인 사회로부터 구분 짓는 문화적인 경계(cultural boundary)마저 없다면 하나의 민족집단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재일동포의 구성원들이 일본 말을 쓰고, 자녀들을 일본학교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게 하면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일본 문화를 익혀서 일본사람들과 경쟁하여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준비를 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 상승을 위해 노력했다면 하나의 통합된 민족집단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교육은 오늘의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를 가능하게 한 바탕을 제공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재일동포들은 귀국을 전제로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기 위한 국어강습소를 일본의 방방곡곡에 세웠다. 이것이 후에 민족학교의 전신이 되었지만, 이때의 강습소란 민가, 창고, 또는 구 일본군의 병기고와 같이 어린이들을 불러모아 가르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설치했기에 전국에 600~700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민족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의 총련의 전신인 [재일본조선인연맹](1945년 10월 15일 결성)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정 시기에는 연합군사령부(GHQ)와 일본 정부의 교육당국에 의한 민족학교의 폐쇄령에 맞서서 재일동포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민족교육권옹호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한 바 있다. 이어서 재일동포사회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총련')로 재편되고(1955년 5월 25일), 이어서 이에 반기를 든 동포들이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약칭 '민단')을 조직함으로써 재일동포 사회는 남북으로 갈라

지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조국의 남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두 편으로 나누어진 것만이 아니라, 민족교육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기존의 재일본 민족학교들은 모두 총련의 '조선학교'로 그대로 남은 반면, 민단은 총련에서 분리되어 나왔기에 기존의 민족학교를 모두 '잃은 채' 맨손으로 나와 겨우 대도시에 한두 개의 민단체 한국학교를 설립해야만 했다. 이것이 현재 민단체의 민족학교가 일본 전국에 4개<sup>7)</sup>밖에 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 1) 조선학교

총련으로부터 민단이 거의 맨손으로 분리되어 나오게 된 것은 민족교육의 장을 총련이 완전히 접수한 것을 의미하는 중대한 전환이었다. 이로서 각급 [조선학교]는 북한의 '해외공민교육'의 장의 역할을 명실공히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1957년 북한이 교육비와 장학금으로 1억2천만 엔의 거금을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해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월까지 도합 149차에 걸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451억 616만 3천 엔을 지원했다는 데에서도 조선학교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sup>8)</sup> 이렇게 북한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액수는 조선학교마다 학교 건물 내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잘 볼 수 있는 위치 벽에 큰 글씨로 알림판을 붙이고 횡수가 거듭될수록 그 통계를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선학교가 '북조선 체제의 한 부분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현재 총련계의 조선학교는 3년제 유치반 및 유치원이 62개교, 6년제 초급학교가 76개교, 3년제 중급학교가 51개교, 3년제 고급학교가 12개교, 2~4년제 대학(2년제 연구원을 포함)이 1개교 등 각급학교가 일본 각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재일 조선인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초급, 중급, 고급학교가 병설의 형식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다. 총련의

7) 도쿄의 [한국학원], 오사카의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교토의 [한국학원]

8) 조총련 홈페이지에 실린 평양 2003년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재일 동포 자녀들에게 149번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2억 3,960만 엔을 보내왔다고 했다 (<http://www.chongryon.com/korea/2003/2003-04-top/2003-04-02.html>).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조선학교의 목록에는 일본 각지에 77개교의 조선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 유치원만이 독립적으로 있는 곳이 3개이고 대학은 도쿄의 [조선대학교] 하나이다.

그러나 조선학교 체제의 각급 학교 수는 지난 5년여에 걸쳐서 상당히 축소된 것 같다. 즉 1997년에 출판된 한 문헌(Ryang, 1997: 3)에는 중급학교가 56개교, 초급학교가 81개교로 나타나 있는 바, 그 사이에 중학 5개교와 초급 5개교가 통폐합으로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총련의 등록을 포기한 동포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한 2세, 3세, 4세로 이어지면서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들을 조선학교에서 일본학교로 전학시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 이로 인하여 각 조선학교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학급의 수를 줄이고, 또 학급당 학생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통폐합으로 학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수의 감소로 민족교육 그 자체가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거의 일본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학생수가 격감하면서 조선학교들 간의 통폐합이 일어나는 상황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는 문제로 이어졌다. 재일조선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몇몇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웃에 위치한 조선학교에 통학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유치부와 초급학교생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버스로 태워오고 데려다 주는 일은 실로 보통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서비스마저 없다면 아마도 조선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는 더욱 격감하고 말 것이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로는 북부 오사카의 한 초급학교에서는 학교버스로 학교에 오는 데만 2시간 또는 길이 더 막히는 날에는 두 시간 반 정도 걸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왕복 3시간 또는 4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통학버스에서는 문을 열고 학생을 태워주거나 내려주면서 기다리고 서있는 학부모(대개 어머니)에게 자녀를 인도해주는 교직원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봐서 이 통학버스에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마치 학습과정의 한 부분인 듯 하다.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자녀를 조선학교에 보내는 데에는 상당한 희생이 요구된다. 도시에서는 그나마도 통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학교가 너무 멀리 있기에 아예 초급학교에서부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총련 비디오』(93-1: 르뽀 ‘우리들과 민족교육’)에 소개된 한 사례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북지방의 모리오카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리쿠츠 해안에 접한 이와테 현의 미야코(宮古) 시에 재일조선인 다섯 가족이 살고 있다. 이 중 리정학 씨 부부는 1세의 모친과 두 아이를 포함한 5인 가족이다. 이 부부는 장녀 희망(7세) 양을 멀리 센다이에 위치한 [도호쿠(東北) 조선초중고급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 이 학교는 편도 거리가 350km로 왕복 7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희망양은 이 학교의 기숙사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 가족은 부업에 큰 딸의 학교 일과표를 붙여놓고 마치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조금 울기도 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집에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의지했던 것들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훈련되고 있는 것을 가족은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은 가끔씩 기숙사로 전화를 걸어 희망 양과 통화하면서 가족관계의 끈을 재확인하곤 한다. 집에 있는 할머니와 기숙사의 손녀 간에 나누는 대화의 한 토막을 옮겨보자:

“희망이냐, 감기 안 들었나?”

“감기 안 들었어요.”

“그래, 공부 잘 하나?”

“할머니, 고구마 고맙습니다.”

“오냐.”

가족은 멀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 딸에게 손수 농사지은 고구마를 맛보라고 보내준 모양이다. 이렇듯 가족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적인 한계를 넘어서면서 자식을 조선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들이 거의 예외없이 경험



하고 있는 바이다. 오사카시의 교외에 있는 사카이(堺)시의 [사카이 조선초급학교]는 마침 인터넷 홈페이지<sup>9)</sup>를 개설해놓고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이 학교의 학생수는 유치반에 6명, 1년생이 2명, 2년생은 없고, 3년생이 5명, 4년생에 7명, 5년생에 6명, 그리고 6년생이 5명으로 전교생이 유치반을 포함해도 총 31명에 불과했다. 특히 2년생의 경우와 같이 전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학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조선학교가 처해 있는 세대간 충원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교원은 각 반에 1명씩 해서 6명의 교사, 그리고 교장과 음악강사 1명이 전부였다. 이처럼 조선학교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재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급학교를 지나 중급학교 3년, 그리고 고급학교 3년제에 이르면 학생들은 점차로 더 줄어들어서 대도시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멀리서 유학 온다. [히로시마 조선 초중고급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이 학교는 관서지방 서남을 지칭하는 나카시코쿠(中四國) 지방을 포괄하는 학구를 가지고 있어서, 히로시마 현, 오카야마 현, 시마네 현, 돗토리 현, 에히메 현, 카가와 현, 토쿠시마 현, 그리고 야마구치 현의 동부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자녀들을 받아들인다. 이 외에도 희망에 따라서 학구 바깥에서 온 학생도 받아들이면서 현재 160명의 생도가 이 학교의 고급부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의 재일조선인 자녀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민족교육을 받는 수년간의 경험은 그들만의 독특한 연대감(sense of solidarity)을 형성하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다시 이런 경험이 도쿄로 옮겨져서 [조선대학] 4년으로 이어진다면 그들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리더십에 오를 엘리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사실 현재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직의 일선에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된 일꾼들이다.

## 2) 민족교육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민족교육은 생명선'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9) <http://www.kita-osaka.co.jp/funan/hackyo/8gou.html>

있다. 이 말은 곧 민족교육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는 살아 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민족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조선 학교이고, 이곳이 바로 재일조선인 사회의 통합을 가져오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이다.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은 가족원 전원이거나, 아니면 가족원 중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자녀들을 조선 사람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일본 사회에서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선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총련계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북한의 '재외공민'으로 키우는 데에 목표를 두어왔기에 일본의 교육당국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왔다. 즉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일본의 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학교의 국기 게양대에는 북한 국기가 걸려 있고, 교실의 교단 위 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어김없이 걸려 있다. 물론 교육의 전(全)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우리말' 즉 조선어에 한정되었다.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초기에는 조선학교의 모든 교과서가 평양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일본 정부와 교육정책 당국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민족교육으로 총련은 실로 막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 즉 일본의 모든 조선학교는 일본의 교육법에 따라서 '각종(各種)학교'로 분류되어 문부과학성의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또한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에게 일본의 국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의 정규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공공교통편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갖가지의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온갖 불평등과 차별을 감수하면서도 계속되어온 민족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총련계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이들을 북조선의 새로운 세대로 키우자!"는 기치를 내걸고 운영되어왔다. 조선학교들은 일본 안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말이 사용되고, 북한 버전의 조선사가 교과서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북한사회에 관한 지식을 가르

치는 것이 최우선 과업으로 간주된다. 이는 곧 민족교육이 어린이들을 그들이 '조국' 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세대로 충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조선학교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귀환' 할 준비를 하면서 우선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국어강습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 반세기를 넘기면서 사회정치적인 상황은 확연히 바뀌었고, 더 이상 '조국 귀환'에 미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곧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 일본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민족교육의 과정에도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민족교육의 흐름은 교과과정 개편의 역사에 잘 나타나고 있다. 1955년에 총련은 그 시작부터 자녀들을 '북조선의 재외공민'으로 키우는 민족교육의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1957년부터는 조선학교가 북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민족교육의 내용은 북한식 교육일변도로 전환되어 나갔다. 1963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총련계 조선학교의 교과과정이 통일되면서 북한의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후로는 거의 10년마다 교과과정이 개편되었는바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가 여기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는 남한 사회가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였다. 반면 일본의 총련계 조선인 사회에서는 1959년에 시작된 북송의 열기가 70년대 후반까지 한창 타오르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총련계의 민족운동이 주로 '남한의 군사정권타도'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는 총련 조직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1973년의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총련이 김일성 숭배정책을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채택하여 교과목은 김일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졌다. 역사과목의 교과서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김일성 수령 중심의 역사로 다시 쓰여졌다. 일본어 과목의 교과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교과서를 그대로 썼지만 이제는 총련의 교사가 쓴 일본어 교과서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련 지도부를 통하여 민족교육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만 갔다.

1983년도의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교과서 편집권이 북한의 직접통제 하에 들어

갔다. 1983년까지는 조선학교의 모든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서는 북한의 것을 번안하여 사용해 왔으나, 이제 총련의 교과서 편집위원회가 여름 방학마다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조선학교용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사상교육' 과 '충성교육'의 측면에서 북한의 간섭은 더욱 철저해지게 되었다. 총련의 1983년판 초급 및 중급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소니아 랑(Sonia Ryang)<sup>10)</sup>에 따르면, 1) '어버이 수령' 김일성의 육친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세운 '충성교육', 2) 사회주의 조국의 매력과 장점, 3) 총련과 소년단의 조직생활, 그리고 4) 북조선주도의 통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급학교 1학년 교과서의 24개 단원 중, 주제의 중복은 약간 있었지만, 김일성과 그의 육친적인 사랑을 다룬 것이 10개 단원, 애국심을 다룬 것이 9개, 조직생활을 다룬 것이 5개, 조국통일의 필요성을 다룬 것이 8개 단원에 달했고, 정치와 무관한 것은 3개 단원뿐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의 교과서들도 북한의 교과서에 못지않게 내부적인 단합과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에 대한 증오심을 철저하게 활용하였다. 즉 "승냥이 미제", "미제의 꼭두각시, 남조선", "일본 반동정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고취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우월성에 대한 신뢰감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북송, 즉 "조국 귀환"의 열기는 거의 식어버렸고, 해방된 지도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간 1990년에 이르면서 총련계 조선인 사회의 생활 조건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일본에 살면서도 애써 일본 사회, 일본 문화를 외면하려는 민족교육을 견지해왔었지만, 2세, 3세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는 일본 문화를 접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80년대와 90년대는 일본이 경제적인 붐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조선학교 출신들은 일본의 사회문화 체계의 본령에 발을 들여놓기가 사실상 힘들었다. 그 대신에 조선학교 출신들은 총련계의 조직이나 사업체, 또는 재일조선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북으로 이주해간 총련계 조선 사람들로 부터는 '치상낙원' 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끊임없는 구원의 메시지들이 날아드는 반면,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재일동포의 안방에까지 전해진 '남조선'의 발전된 모습

10) Ryang(1997)의 제1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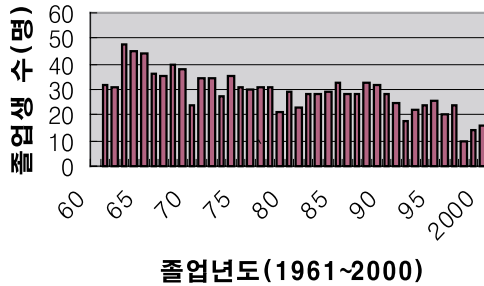
들은 많은 총련계 동포들의 생각을 돌려놓고 말았다.

재일조선인들은 이제 북쪽도 남쪽도 아닌 일본이 앞으로 자식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땅이라는 점에 점차 공감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남한의 군사정권의 종식도 총련의 민족운동의 열기를 잠재우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적인 변화가 결국 재일조선인들의 총련계로부터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여기서 총련계 조선인들은 이제 장차 자녀들에게 일본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준비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다. 즉 학생들에게 총련과 북한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선학교 출신들도 일본의 대학에 입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역사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일찍부터 습득하게 해서 일본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이미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2세 또는 그 후 세대였기에 그들이 일본사회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아마도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는 곧 1993년에서 1995년에 걸친 조선학교의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되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마치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거나, 장차 북한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이루어졌던 민족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도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럴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개편이었다. 즉 [사상교육]이 총련 교과목에서 빠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대신에 일본의 역사, 사회, 언어를 가르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sup>11)</sup>

조선학교의 민족교육 현장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이제 거의 예외없이 이미 2세나 3세들이다. 젊은이들이 “왜 우리가 김일성과 북조선만을 배워야 하나?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교사들은 이제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조선학교 출신들도 일본 대학들에 입학시험 준비를

11) Ryang(1997) 제2장 참조



〈그림 1〉 동북초급학교 졸업생수 추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세와 3세의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93년도의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민담을 포함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내용들, 즉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새 교과서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이제 총련과 북한 이외의 다른 영역에 걸친 폭 넓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의 교과과정 개편이 지금까지의 교과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에서 사상교육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물론 이런 개편에는 북한 측으로부터 강한 반대가 없었다고 하는바, 결과적으로 북한의 간섭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총련의 울타리 속에서의 변화이기에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이 북한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 3) 동북학교 현장

이제 연구자가 현지조사한 조선 초급학교 현장으로 초점을 모아보기로 하자. 동북조선초급학교<sup>12)</sup>는 오사카에 있는 13개의 총련계 조선학교 중 하나이다. 1959년에 설립되어 1999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이 학교의 기념사진 및 자료

12) 학교 명칭은 인류학 현지 연구의 전통을 따라 가명으로 하였다.

집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는 매년 40여명이 졸업했다.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매년 졸업생수는 30여명으로 떨어지다가, 그 후 90년대 초반까지는 20명대로,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10명대로 격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사 당시 2002년 현재로 이 학교의 학생수는 유치원생이 1차년생, 2차년생, 3차년생이 포함 29명이었고, 초급학생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개 반에 총 59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로써 유치원생과 초급학생이 각기 매 학년 10명 정도로 한 반을 이루고 있었다. 2003년 2월의 추가 조사시에 확인한 바로는 2003년도에는 초급학교 입학생은 14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약간 늘었고 유치원에는 8명이 입학하기로 예약되어 있었다.

학교의 교직원 조직은 교장 1명과 초급학교 교사 7명(그 중 한 명은 교무주임), 유치원 교사 3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회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회는 민족교육 현장과 총련 조직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채널로 회장과 전임 및 사무원이 각기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회 회장과 전임, 그리고 교사 중 한 분은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대의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일도 맡아서 하는 등 작은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또 음악을 담당하는 강사가 일주일에 화, 목, 토 3일간 출근하여 음악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가 설립 초기에는 한 반에 4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겨우 10명 정도로 줄었기에 학교의 수업은 그야말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수업은 일본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우리말'로 진행되고, 교실 안의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나 알림판, 또는 학생들이 쓴 연습작품들은 거의 모두 우리말로 되어있다. 각 교실의 교단 뒤의 칠판 위에는 어김없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액자가 걸려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총련계 조선학교'라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다. 교실마다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민족문화를 비록 영상으로나마 좀더 실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유치부 학급은 연령별로 3개 반으로 구성되어있는 데, 1년차생을 [해바라기반], 2년차생을 [진달래반], 그리고 3년차생을 [도라지반]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명칭은 민족어가 좀더 친근하게 몸에 베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

에서는 가능한대로 우리말로 대화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엄하고도 공식적인 행동양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서로 친구사이 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유치부에서부터 전 학년에 걸쳐서 쉬는 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놀 때는 교사와 학생들이 격의 없이 한데 어울리고 있어서 마치 이웃 친구들끼리 동네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학교 교장은 조선학교를 ‘민족의 밀천’이라고 표현했다. 즉 조선학교가 재일조선인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고 다지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조선학교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지만, 지금은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교장의 이런 진술에서도 조선학교가 이제 북한의 ‘재외공민 교육’에서 탈피하여, 일본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북초급학교에는 여느 조선학교와 마찬가지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물론 조선학교들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지역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총련계 조선인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들의 등록이 저조해지면서 조선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제 학생들은 더 먼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들이 통학하고 있는 조선학교들은 이제 ‘이웃에 있는 학교(neighborhood school)’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의 등교시간은 오전 9시이지만, 이 학교의 학생들 중 멀리 살고 있는 학생은 등교를 위한 통학버스 승차시간이 무려 두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기에 하루에 왕복 4시간을 통학버스에 타고 있는 셈이다. 이 통학버스는 교직원과 교사가 운전을 맡고 있는데, 버스마다 한 사람의 운전사와 승차와 하차를 도와주는 보조원 한 사람 등 2인 1조로 운행한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그들은 매일 아침 5시 50분 경에는 통학버스를 몰고 집을 나서야 한다. 초급학교 4~6학년의 ‘높은 학생들’은 전차나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하도록 하지만, 그 아래의 ‘낮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3대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서비스한다. 이런 방침에서도 조선학교가 총련계 조선인 동포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며 특별하게 정성을 쏟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 통학버스의 운행사정을 관찰하기 위해 하교버스에 동승한 적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도 마치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버스 안에서 보조원은 학생들과 놀이를 하든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이들을 민족문화의 캠프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의 모든 대화는 '우리말'로 한다. 학생들이 우리말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잘못 표현했을 때에는 교정해 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학교의 수업만이 아니라, 교실 바깥에서도 놀듯이 공부하고, 공부하듯이 노는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이 조선학교에 다니는 것 그 자체를 즐기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집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멀리 흩어져 있기에 통학버스는 심하게 꼬불꼬불한 골목을 따라서 헤집고 나아간다. 그러나 운전사는 철저하게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교시에는 버스가 학생들의 집 앞에 도착할 때에는 거의 어김없이 가족원이 문 앞에서 아이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통학버스가 당도하면 보조원은 반드시 내려서 아이를 인도하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학생의 집으로 향한다. 이런 모습에서도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가족과 강한 신뢰감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4) 학교생활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침 9시까지 등교해야 한다. 수업은 5분간의 [휴름] 모임(9: 05~9: 10)을 가진 후에 1교시(9: 10~9: 55), 2교시(10: 05~10: 50), 3교시(11: 00~11: 45), 4교시(11: 55~12: 40), 그리고 40분간의 점심식사 시간(12: 40~1: 20)을 가진 후에 다시 5교시(1: 20~2: 05)를 끝으로 각기 45분간의 수업을 받는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수업까지 다섯 시간이고,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 네 시간만을 받는다. 따라서 통학버스는 하교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3시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 학교를 출발한다.

조선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남학생이 많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 학교의 유치원 최상급반인 [도라지반]에는 학생 11명 중 여학생은 2명밖에 없었다. 자녀 중 아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선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갈만도 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딸보다는 아들에게 조선 사람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재일조선인들 사이에 남아선호의 전통적인 관념이 면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재일조선인 사회는 아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부모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인 사회가 일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아무리 조총련 사회가 견고한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젊은이들의 일본인과의 사회적인 교제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생활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국적의 경계를 넘은 혼인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일본인과 혼인한 딸들의 가족이 조총련 사회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만, 아들이 일본인 여성과 혼인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마지못해서라도 조총련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60년대와 70년대를 휩쓸었던 재일동포 북송의 물결에서도 조선인과 혼인한 일본인 처들이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간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조선인 아내를 따라서 북으로 간 일본인 남편들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바로 이런 조선인들의 가치관이 아들의 경우 조선학교에 보내 조선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점심은 학생들이 각자 도시락을 지참해서 등교한다. 도시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빵(60~130엔)과 우유(100엔)를 판매하기도 하고, 또 매일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주문(보통: 400엔, 대: 450엔)해주기도 한다. 점심시간에는 학교에서 차를 제공해주기에 학생들은 각자 컵을 준비해야 한다.

초급학생들에게는 매월 한 번씩 [어머니 급식]이 마련된다. 어머니들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면서 학교에 나와 점심식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잡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치부는 별도의 [어머니 급식] 프로그램이 있다.

유치부는 초급반보다 더 자주 매주 한번씩 [어머니 급식]을 마련한다. 어머니 3

명이 당번을 맡아서 학교에 나와 급식을 마련한다. 이때의 메뉴 중에는 주먹밥이 선호되는 편이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치아에 좋다고 판단되는 주먹밥을 더 자주 제공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함께 수영장에 가기에 이때는 점심을 학교에서 [빵 급식]으로 마련한다. 참고로 2002년 12월의 빵 급식 예정표에는 12월 3일에는 믹스피자와 미니크로와상, 12월 10일에는 카레 빵과 나가사키 찐빵(카스텔라 일종), 그리고 12월 17일엔 에그원나와 미니크로와상이 올라 있었다. 이를 위한 비용은 모두 학생들이 매월 내야 하는 잡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12월분의 잡비는 수영장 입장비 2,400엔(800엔 × 3회), 빵 급식 750엔(250엔 × 3회), 어머니 모찌 만들기 참가비 200엔(불참하는 경우 없음), 사진대 300엔(3년차의 도라지반은 없음), 리토믹 800엔(200 × 4회 11월의 1회분 포함)을 포함하여 1년차 해바라기반과 2년차 진달래반 학생은 4,450엔씩, 그리고 3년차의 도라지반 학생은 4,150엔씩으로 책정되었다. 학생들은 매월 이 돈을 잡비 봉투에 넣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 생활에서 교실의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조용히 연습에 임하기보다는 마치 놀이터와 같다. 유치원 최상급반의 [설맛이 노래] 연습 시간의 학습태도를 잠깐 살펴보자. 모두들 교사의 풍금 주변에 둘러서서 함께 노래한다. 청군과 홍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습한다. 그 중에는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지적하면서 야단도 치고 조용히 타이르기도 한다. “오늘은 태도가 아주 나빠요. 동무들, 세 번째로 그런 지적을 받으면 반에서 나가주세요.” 교육현장은 긴장된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조선 씨름과 조선 팽이 놀이 같은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옆에서 응원할 때에는 거의 우리말로 한다. 교사들은 틈만 나면 학생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고 마치 어머니와 같이 학생들을 안아주기도 하는 등 스킨십이 극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가 있다.

연구자가 교실 현장을 관찰하기 위해 들렀던 날은 12월말이라 학생들에게 곧 새해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칠판에는 새해인사로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크게 써놓고 학습을 하

〈표 3〉 학과목 구성표

(주당 시간배분)

학년	국어	사회	조선 역사	조선 지리	산수	이과	일어	체육	음악	공작	주당 합계
1	10				4		4	2	2	2	24
2	9				5		5	2	2	2	25
3	8	1			5	3	5	2	2	2	28
4	8	2			6	3	5	2	2	2	30
5	7	2		2	5	3	5	2	2	2	30
6	7	2	2		5	3	5	2	2	2	30

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새해 아침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면서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설날인사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과세 안녕하세요!”라고도 하지만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더 좋겠다고 했다. ‘새해 복’이란 표현을 간단히 ‘새복’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줄임 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정형으로 굳어질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인사말을 여러번 반복시키면서 강조한다. “ [똑] 바로 외웠는지? 새복 많이 받아주세요. 새복 많이 받아요! 잘못하면 세배 돈 못 받아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교사의 우리말 발음에서는 일본식의 표현이 역력하고, 우리말 용어들이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똑바로’를 ‘ 바로’라고 발음하였다. “새복 많이 받아주세요. 새복 많이 받아요!”라는 표현에서는 세배를 올리는 학생과 받는 어른 사이에 누가 누구로부터 ‘새복’을 받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세배 돈’은 학생들에게는 마치 ‘새배 돈’으로 들리기에 ‘새복’과 ‘새배’가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민족 언어는 그 맥락을 떠나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들어내 주고 있다.

통용되는 언어는 우리말과 일본어가 뒤섞여 있다. “정월 1일은 ‘아다라시’ [새로운] 정월(正月)가 됩니다.” 여기서는 일본어식 표현인 ‘아다라시’와 우리말의 ‘정월’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바, 언어학적으로는 언어 혼합(code mixing) 현상의 사례이다. 또한 ‘정월(正月)이’ 대신에 ‘정월(正月)가 됩니다’로

〈표 4〉 매월 납부금 내용 및 규모

(단위: 엔)

항 목	1 . 2 . 3학년	4 . 5 . 6학년
학교운영비	8,000	8,000
도서비	1,500	1,500
학급비	300	400
연료비	1,000	1,000
통학버스비(이용자만)	2,800	0
보험료	500	500
위생비	300	300
시설관리비	500	500
여행적립금	0	1,500
합계	14,900	13,700

표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격 조사인 ‘…이’와 ‘…가’의 사용법을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즉 받침이 있으면 ‘…이’,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가’로 쓰는 우리말의 주격 조사 붙이는 방식을 알지 못한 데에서 ‘정월(正月)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또한 일본어에는 ‘정월(正月)’이 ‘쇼우가츠’로 읽히기에 ‘쇼우가츠가’로 발음하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총련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사회 전체가 그렇지만, 언어생활에서 일본어와 우리말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언어 혼합의 사례는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아마도 이것은 호스트 문화인 일본문화와 자신의 민족문화의 두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생활양식의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재일동포 사회 중에서도 민족문화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조총련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제 교육현장의 교사들마저 2세와 3세로 이어지면서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한 언어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

조선학교의 초급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과목은 우리말이다. 이는 민족학교의 특성상 불가피한 편성으로 판단된다.

위의 학과목 구성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초급학교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말 교육인 국어 시간은 6년간 주당 총 49시간인 반면에 일본어는 29시간에 불과하다. 바로 이 점이 일본의 교육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민족교육인 한 조선학교 측으로부터도 물러설 계획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조선 지리'와 '조선 역사'의 경우에는 각기 5학년에서의 2시간과 6학년의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제일 조선학교들이 '북한의 재외공민' 교육보다는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릴 준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측면을 엿볼 수가 있다.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제일조선인들이 자녀들을 일본학교에 보낸다면 공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매월 납부금을 내지 않고도 자녀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이런 혜택도 마다하고 민족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우선 매월 납부금의 내용과 규모를 알아보기로 하자.

조선학교는 일본의 교육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어서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이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실로 크다. 납부금 중에는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매월 8,000엔씩의 학교운영비이다. 납부금은 1, 2, 3학년의 낮은 학년과 4, 5, 6학년의 높은 학년의 두 세트로 구분되는데, 양자간의 큰 차이는 낮은 학년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2,800엔씩을 내고, 높은 학년의 경우 단체여행을 위한 기금으로 매월 1,500엔씩을 적립한다. 통학버스와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기에 전체 학생들에게 통학서비스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높은 학년 학생들에게는 혼자서 통학하는 사회적응훈련도 필요하기에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월 납부금으로 낮은 학년은 14,900엔, 그리고 높은 학년은 13,700엔씩 징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방학을 제외한 10개월간(4월~7월, 9월~2월)에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해서 학생들은 학기 중 매월 잡비로 2,000엔씩을 낸다. 이것은 소풍, 사회견학, 교재, 수영, 한자검정, 매월 1회의 어머니급식의 대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혹시 이 잡비가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학기가 끝나고 3월에 돌려주든가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된다. 이 잡비에는 아버지 및 어머니 회비, 바자, 피서대회의 식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매년 4월 1일에는 초급학교의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입학식이 있다. 이때 학생들은 각기 입학 수속금(4월 운영비 포함) 12,100엔과 교재비 3,650엔을 지불한다. 이 교재비는 산수 세트, 점토 세트, 도구 주머니, 그리고 케스터네츠(악기의 일종

인 목재 딱딱이)를 마련하는 비용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2,800엔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기에 입학 수속금이 18,550엔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통 수준의 재일동포 가계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민족의식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요한다. 바로 이 점이 현재 일본의 조선학교들이 생존의 차원에서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본 사회에서의 정착 역사가 점차 깊어 갈수록 2세, 3세, 4세로 이어지는 학부형들의 민족의식은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직면하면서, '민족' 만을 앞세우면서 교민들을 총련의 캠프 속에 붙들어 놓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제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5) 예술발표회

학교 교육은 교과과정에 따른 정규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동급생뿐만 아니라 선후배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유대를 다진다는가, 통학버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다져지는 정서적인 유대 등은 조선학교 민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학교에서 기획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교육 행사로는 연례적인 예술발표회 행사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조선학교와 같은 민족교육 기관에서 이 예술발표회는 민족적 정체성을 세대간에 전승시킬 수 있는 최상의 행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마치 문화인류학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멜라네시아의 트로브리안드 섬에서 연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쿨라의 관습이 부족의 전통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표 5〉 한 동북조선초급학교의 (예술발표회) 프로그램 제1부

번호	종목	공연 제목	출연자
1	합창	바다(외 1곡)	고학년
2	이야기	청개구리	3학년 학생
3	북놀이	북놀이 하자구나	진달래반(유치반 1년차)

〈표 6〉 한 동북조선초급학교의 (예술발표회) 프로그램 제2부

번호	종목	공연 제목	출연자
4	무용	꽃씨를 뿌려요	6학년 무용부
5	군독(群讀)	큰 순무	1학년
6	합주	즐거운 무도곡(외 1곡)	2·3학년
7	이야기	나의 비밀	6학년생
8	노래와 민족악기	운우풍뢰(雲·雨·風·雷)	시미즈소학교(清水小)·신모리소지소학교(新森小路小)의 민족서클
9	리코다 합주	빨강 잠자리(외 1곡)	고학년 남학생들
10	군무(群舞)	민속놀이 즐거워요	무용부
11	합창	빛나라 미래!	유치반
12	합주	동북아저씨의 하루 I 아침은 바빠 II 어찌했나요! III 별 내리는 밤	유치반
13	예술 선동	웃음꽃, 모범꽃 활짝 피워요	저학년
14	가면무	탈 춤	4·5학년
15	여성중창	꽃 놀이(외 1곡)	저학년 여자
16	연극	원숭이의 원족	해바라기반(유치반 1년차)
17	연극	둘배 탄 이야기	저학년
18	태권도	태권도	도라지반(유치반 3년차)
19	민족 타악기	울리자 나래치자 하나로 되자	6학년
20	합창	조호꾸조선초급학교의 노래	초급부

주요한 채널이 되고 있듯이 조선학교의 예술발표회에서도 그 준비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민족문화의 제요소를 실감하고 각종 예술 프로그램에 체험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행사는 어느 정해진 날 오후에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학부모들과 내빈들 앞에서 공연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은 그 준비과정이 비록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지극히 교육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한 동북조선초급학교에서는 매년 2월중 한 토요일 오후를 잡아 [예술발표 모임]을 갖는다. 이를 위해 학교 당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짜는 일에서부터 공연 연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연구자가 조사한 시기에는 제42회 예술발표회가 2002년 2월 16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에 걸쳐서 구민(區民)센터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공연 그 자체는 두 시간여에 걸쳐서 벌어지지만 이를 위한 연습기간은 실질적으로 3, 4개월에 걸친 고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물론 학교 당국으로서는 한 해의 공연이 끝나면 곧 그 다음해의 공연을 생각해야 하기에 일년 내내 준비과정이 계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로 이 [예술발표모임]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문화를 체험하고, 한 세대의 어린이들을 민족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세대의 국적불명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 하나는 민족문화로 내용을 채우는 그릇이었다. 또한 지루하고도 고된 연습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민족문화를 내면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나 교실에서 연습할 때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거의 교사들 전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연습과정에 몰두하면서 돕고 있는 모습에서 민족 및 민족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2002년도의 제42회 [예술발표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02년도의 [예술발표회]의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2번의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의 이야기이고, 4번의 무용은 곧 졸업할 6학년 여학생들이 꽃씨를 뿌리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어린이들을 묘사하고 있다. 8번의 '노래와 민족악기'라는 순서에서는 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정규 소학교인 [시미즈(清水)소학교]와 [신모리쇼지(新森小路)소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의 아동들이 민족악기를 열심히 연습하여 마련한 것으로 일본 학교와의 교류의 첫걸음으로 우정 출연해준 공연이었다. 9번의 합주는 '빨강 잡자리'와 함께 백나유의 시 '어린이들이여, 이것이 우리학교다'를 리코더 곡으로 읊긴 것을 연주한 것이다. 10번의 집단무용에서는 언니가 조국방문에서 돌아올 때 선물로 가져온 책에서 튀어나온 옛날 어린이들과 함께 민

속놀이를 즐겁게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의 율놀이, 팽이치기, 씨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는 김채순의 작사, 작곡의 '빛나라 미래!' 를 유치반의 합창으로 꾸몄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난 뒤에 이어진 제2부의 첫 순서에는 유치반 학생들의 합주로 꾸며진 '동북아저씨의 하루' 가 올려졌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태어난 37살의 독신 수의사인 아저씨는 아침 늦잠꾸러기로 아침마다 동물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라 하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었다. 13번의 '예술선동' 순서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되어 온 꽃피우기의 여러 가지 성과를 노래와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14번의 '탈춤'은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항목이었고, '꽃놀이'와 '유희곡'의 저학년 여학생들의 중창을 거쳐서, 16번에서는 연극 '원숭이의 원족'으로 관객 모두가 즐거워했다. 내용인즉, 사이좋은 새끼 원숭이 8마리가 즐겁게 소풍을 나갔는데, 숨바꼭질 놀이 등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돌아온 시간이 다되어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숫자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부족했다. 어떻게 된 사연이었을까? 17번의 연극 '돌배 판 이야기'에서는 마을의 작은 산에 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욕심 많은 원숭이 형제가 있었지만, 마음씨 고운 동물들은 이 원숭이 형제에게도 배를 나누어주면서 언제나 사이좋게 살았다는 이야기. 18번째 '태권도'는 민족 스포츠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3년차 유치반생들의 순서이고, 19번째 순서에서는 졸업을 앞둔 6년생 전원이 등장하여 지난 6년간에 생각나는 일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민족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연주였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전원이 무대를 메우면서 교가를 합창하는 순서로 예술발표 모임의 막을 내렸다. 여기에 참고로 이 학교 교가의 가사를 옮겨보자:

오사카 동북 땅에 조국 사랑 안고 솟은  
동포들의 지성 어린 우리의 배움터  
몸과 맘 다 바쳐 민족정신 지켜온  
붉고 붉은 그 마음을 꽃꽂이 이어가네  
(후렴) 조국 위해 민족 위해 배워가는 정다운 곳  
동북조선초급학교 슬기론 우리 모교

맑고 푸른 조국 하늘 가슴에 안-고서  
지덕체의 나래 펼쳐 어엿하게 자라나네  
우리 민족 제일이라 긍-지도 드높이  
넓은 지식 튼튼한 몸 키우며 나가리라  
(후렴) 조국 위해 민족 위해 배워가는 정다운 곳  
동북조선초급학교 슬기론 우리 모교

마지막을 장식한 우렁찬 교가 합창은 구민 홀을 가득 매운 학부모들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 공연은 '예술발표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공연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민족운동과 민족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쉽게 파악될 수 있었다. 공연은 전체가 우리말로 진행되었고, 그 내용에 각종 민속놀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조국(북한) 방문이 거론되는 것이나 조선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등등의 그 자체가 민족교육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점은 고된 훈련을 거치면서 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과 함께 교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긴장감을 풀지 않은 채 연습에 몰두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연구자는 여기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발표회는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은 물론 졸업생들을 포함한 총련 가족의 축제였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일은 이 공연에는 지역의 민단지부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교장과 나란히 앉아 관람하였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지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사실 민단과 총련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도쿄의 중앙본부 수준에서는 분명하지만, 지방의 수준에서는 이제 같은 동포로 서로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할 정도로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

#### 4. 재일조선인 사회의 민족결혼

어느 사회나 막론하고 결혼은 생활양식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통과와

례 중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이고, 그 사회의 연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한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충원은 필수적이고,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결혼은 대체로 민족구성원간에 일어나기에 세대 간의 연속은 민족 구성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민족이 한 사회 안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민족 간의 결혼은 민족의 경계(ethnic boundary) 및 정체성과 관련하여 단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애정에 기초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통합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세계 도처에서 이민족과 함께 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유대인들끼리만 혼인하는 내혼(endogamy)의 관습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유대인으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민사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구성원들간의 내혼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한 사회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족과의 결혼은 좋은 싫든간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재일조선인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제1세대의 목소리는 점차 약화되고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어지면서 민족에 대한 애착은 점차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과의 혼인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의 존속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들에게 민족결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민족결혼의 의미

재일조선인 제1세대의 공통된 바람은 자식들이 동포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재일조선인 사회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이고, 민족문화도 세대간에 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녀들을 일본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조선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벽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수록 젊은 세대는 일본

인 및 일본 문화를 접하는 빈도와 폭도 더 증가되기 마련이고 이는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 문제란 다름 아닌 민족결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8월27일 도쿄 이케노하타(池之端)문화센터에서는 [총련 도쿄도본부 민족결혼문제간담회]가 개최되었다(『조선신보』 2002/9/4). 여기에는 도쿄의 북부블록 총련지부 위원장과 녀성동맹 지부위원장, 도쿄 청상회 간사장, 동포결혼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동포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족결혼 문제의 현실을 점검하고, 민족결혼의 성사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모임에서 제시된 통계로는 1984년부터 민족결혼에 비해 국제결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현재는 민족결혼 비율이 20%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단계에 비해서 민족집단의 통합성이 월등하게 강했던 총련계 조선인 사회에서 민족결혼이 2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는 실로 놀랄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회의는 “결혼상담소와 총련의 각급 기관이 힘을 합쳐 민족결혼 문제에 큰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조선신보』는 보도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되었다는 몇몇 참가자들의 의견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민족결혼에 대한 동포들의 요구는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굳은 결심을 안고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해 왔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해왔는가, 민족교육이 생명선이라고 해왔는데 민족결혼도 그런 각오로 해야 하지 않는가.”

“총련, 녀성동맹만이 아니라 청상회와 조청도 함께 힘을 합쳐 동포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민족결혼이 줄어들면 우리 학생도 감소되고 동포사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민족결혼의 감소는 단지 새 세대의 배우자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다. 민족결혼이 아닌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과의 결혼이다. 이 경우 동포사회에 이방인(outsiders)이 끼어들게 되면서 민족성이 희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 국적을 따를지 어머니 국적을 따를지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일본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점차로 많아지고 있는 사실이 총련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결혼도 민족교육에 못지 않게 총련계 조선인 사회의 '생명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자녀가 혹시 조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의 생활양식에는 두 가지의 문화가 공존할 것임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총련계 조선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직 생활의 현장인 분회활동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결혼이다. 앞에서 이미 큐슈의 북부지역인 고쿠라(小倉)지부의 분회활동의 르뽀를 담은 총련의 선전 테이프(『총련 비디오』, 93-9)에서 [분회활동 100점 운동]의 사업내용을 통해서 총련계 조선인 사회가 민족결혼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즉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도록 설득하는 것(50점) 다음으로, 중매를 주선하는 경우 '선보기' 10점과 '결혼성립' 30점을 포함하는 40점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과 같이 일본인과의 결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면 민족의식은 점차로 멀어질 것이고, 민족의 경계는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총련계 조선인 사회의 기성세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 2) 동포결혼상담소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등장한 것이 총련 조직의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구축된 결혼상담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동포의, 동포에 의한, 동포를 위한” 결혼상담 창구를 표방하고 1994년에 출범한 [동포결혼상담소]로 이미 조선인 사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도쿄에 중앙센터를 두고, 일본 전역에 7개의 지방센터와 37개의 도시에 지역상담소가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상담소의 홈페이지<sup>13)</sup>를 개설하여, [청실·홍실 시스템]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결혼

13) <http://www.kyoron.net>

또는 재혼을 위한 배우자 후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 후보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고 이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지 [동포결혼상담소]의 홈페이지는 일본어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아주 인상적이다. 이는 총련계 조선인 사회가 애써 일본어, 일본문화를 외면하려는 노력과는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포결혼을 권장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이 이념보다 앞서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제 [동포결혼상담소]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동포결혼상담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결혼 배우자를 찾는 작업에 좋은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에 사는 29살, 한국국적의 남성입니다. 동포녀성을 모집중이에요.》, 《일본회사에서 일하고 있기에 조선사람하고의 만남이 전혀 없어요.》, 《결혼해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러한 내가 좋다는 분, 메일 기다립니다.》, 《일본에 귀화한 재일한국인이에요. 취미는 스포츠, 컴퓨터 관계의 회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명량한 동포녀성으로부터의 메일을 기다려요.》이런 식으로 [동포결혼상담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동포와의 만남을 바라는 젊은이들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총련 조직이 젊은이들의 시대감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추가해서 결혼상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청실·홍실 시스템]과 함께 상담소에 설치해놓고 있는 TV전화 시스템은 민족결혼을 촉진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청실·홍실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하자.<sup>14)</sup> 각 지방에 설치되어있는 지역 상담소에서는 회원제의 결혼상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여섯 단계로 사업이 추진된다. 제1단계는 자료를 청구하고 카운셀링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배우자를 찾는 당사자나 부모가 상담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면, 경험이 풍부한 카운셀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해준다. 그 다음으로 프로필과 소개용 사진을 상담소에 지참하거나 우송하여 그 내용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청실·홍실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이 제2단계 입회의 순서이다. 제3단계에서는 [청실·홍실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의 회원 중 신청한 회원이

14) [동포결혼상담소] 홈페이지 참조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감을 찾아내어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송해준다. 제4단계에서는 쌍방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맞선을 주선해준다. 제5단계에서는 맞선 이외에 남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만나 배우자감을 탐색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이벤트를 마련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낸 커플의 약혼과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마지막의 제6단계 사업이다.

이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2만 엔의 입회금을 내어야 하고, 일이 추진되는 대로 맞선 소개료로 1인당 1회에 2만 엔씩, 그리고 결혼이 확정되면 성혼료로 30만 엔을 상담소에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바(千葉)현의 동포결혼상담소의 홈페이지에는 입회금과 소개료가 각기 1만 엔, 그리고 성혼료가 2만 엔인 것으로 봐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각 지역 동포결혼상담소는 서비스를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상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남녀 회원들을 상대로 만남의 장을 주선한다. 이런 이벤트는 해당 지역 안에서 개최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해외에서의 파티로 주선되기도 한다. 동포결혼상담소의 홈페이지에 실리는 [청실·홍실 뉴스] 코너에는 이런 [만남의 파티]에 관한 리포트가 자주 실려서 동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sup>15)</sup> 그 중 한 기사에서는 도쿄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만남의 파티]가 2000년 2월 25일 관동센터의 주최로 平安閣에서 열렸다고 한다. 이 기사는 “참가자는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남성 19명, 여성 16명(평균연령 32세, 여성 29.7세)으로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 모였다. 새로운 세기의 막을 여는 좋은 분위기에서 1대 1의 대화, 그룹 대화 등으로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번 파티에서는 6쌍의 커플이 탄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관서지역에서도 4월 1일 오사카의 太閤園에서 近畿(近畿)센터 주최로 [만남의 파티]가 열려, 남성 15명, 여성 20명(평균연령 남성 31세, 여성 28.5세)이 참가해서, 4쌍의 커플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청실·홍실 시스템]에서 찾아낸 배우자 후보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상담소의 TV전화가 동원된다. 이 화상전화 시스템은 일본 전국에 12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즉 도쿄 2개소, 요코하마, 아오모리, 누

15) <http://www.kyoron.net/hyan/hyaninfo.htm>



마즈, 나고야, 오사카, 교토, 고베, 히로시마, 톳토리, 그리고 후쿠오카의 지방 동포결혼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화상전화 시스템은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디지털 회선을 사용하고 있기에 목소리를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일단 직접 만나기 전에 더욱 자세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배우자를 찾는 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기반이라고 한다.

약간 낡은 통계이기는 하지만, 상담소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바로는 1994년 결혼상담 네트워크가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5년간에 [청실·홍실 시스템]의 회원수는 8,400명, 성혼수는 1,389쌍, 그리고 124회의 이벤트가 개최되어 총 5,882명의 회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또한 총련의 기관지에 실린 최근의 통계로는 설립 당시부터 2002년 초까지 동포결혼상담소가 1,834건의 민족결혼을 성사시켰다고 전하고 있다(『조선신보』 2002/3/4). 이와 함께 연간 홈페이지 조회수가 8만 건을 넘었다고 전하는 바, 이제 동포결혼상담소의 역할은 총련계 조선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 같다.

민족결혼은 조선인 사회의 생명선으로 간주될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에 총련은 산하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민족결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민족결혼은 [동포결혼상담소]의 관심사만이 아니다. 2002년 11월초 도쿄의 오타(大田)지부에서 민족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집중운동총화모임]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조선신보』 2002/11/22). 총련 오타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관하의 일꾼들, [오타동포생활상담종합센터]와 [동포결혼상담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민족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집중운동 기간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인지가 토의되었다. 이 운동기간에 오타지부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이른 자녀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방문과 대화를 실시한 사례가 35호, [결혼상담안내]와 [만남의 파티]에 관한 선전물을 배부하고, 또 민족결혼문제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으며, 민단의 지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했다. 또한 [청실·홍실] 회원을 확대하려는 캠페인을 통해 10명의 회원을 새로 확보했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우자감을 찾아주는 성과와 본보기를 창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도쿄에서 있었던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현재 총련계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상황은 일본 전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는 최근의 『조선신보』의 보도 경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민족결혼의 감소는 이제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의 존속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 민단계의 동포 사회에서는 상황이 어떨까? 어려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민단계의 자녀들에게는 배우자 선택에서 '민족'이 개입되는 정도가 훨씬 낮고,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단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민족결혼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일본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 3) 민족결혼의 과정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민족결혼은 특별히 축하해줄 만한 경사로 받아들여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같은 조선인 배우자를 찾았을 때 소원을 이룬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민족결혼은 조선인 사회의 큰 경사로 간주되는 반면, 혹시라도 일본인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경우에는 부모들은 조선인 사회에서 자랑할만한 일이 못 되는 것으로, 또는 감추고 싶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결혼이기에 일본문화 요소를 철저히 무시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혼의 과정에서 군데군데 일본문화의 요소가 개입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동포결혼상담소]의 홈페이지에는 관심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결혼식과 관련된 여러 단계의 계획에 대한 지침서를 제시해놓고 있다. 물론 모든 결혼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중대한 통과의례를 치루는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민족문화의 틀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도움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지침서는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는 데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sup>16)</sup>

---

16) 부록-1의 [결혼식까지의 과정: 지침서] 참조

일본인의 결혼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점검에 점검을 거치면서 추진된다. 이런 일본 문화의 요소가 재일조선인의 결혼식 준비를 위한 지침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결혼식에서는 비록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애결혼인 경우에도 형식상 중매인을 내세운다. 이런 풍습도 그대로 수용되어, 결혼이 결정되면 4~6개월 전에 중매인을 의뢰하는 것으로 결혼식 준비가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결혼식에서와 같이 주로 신사에서 하거나 최근의 경향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별도로 피로연회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선인 사회에서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과 피로연회를 합쳐서 치루는 방식이 더 보편적이다. 이 때 중매인은 결혼식의 형식적인 증인 역할만이 아니라 주례 역할도 맡게 된다.

결혼식에 앞서서 수개월 전에 약혼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양가의 극히 소수의 가족 및 친척만이 참석하여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치러지거나 또는 신부의 집에서 치러지기도 한다. 이때 전통적인 방식의 결납(結納) 또는 봉채의식이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것은 신랑 측이 결혼을 허락 받기 위해서 신부 측에 건네주는 예물이다. 최근에는 봉채를 직접 넘겨주기보다 항목을 적어서 약혼식장에서 읽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결혼식장은 그 자체가 피로연장이기에, 신랑이 결혼선언문을 낭독하고 주례가 성혼을 선언한 후 주례사를 하는 등의 공식적인 결혼식 순서가 끝나면 약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에 걸친 화기에애한 피로연이 펼쳐진다. 민단계의 동포 사회에 비하면, 총련계의 조선인 사회의 결혼식은 거의 대부분이 총련계 사람들만의 잔치이다. 그러기에 공화국에 대한 충성의 맹세나, '수령님'이나 '장군님'이라는 용어는 대화나 스피치에 거침없이 등장한다. 이런 언어생활이 민단계의 친지들에게 거부감을 안겨주게 되고 두 캠프 사이에 벽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대체로 연회가 계속되어도 참석자들의 행동이 시종일관 틀에 박힌 듯한 예의나 형식성을 유지하지만, 총련계 조선인 사회의 결혼식 연회는 마치 '마을 잔치'와도 같이 사람들의 행동에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무와 음주로 흥을 돋우면서 신혼부부의 탄생을 축하한다. 또한 총련계 조선인의 결혼식은 총련이라는 '내집단(in-group)'의 단합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되기도 하기에 특히 민족결혼인 경우에는 조선인 사회의 '민족적

인 경사'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인 혼례과정의 하나인 '동상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첫인사를 하는 날 저녁에 신부댁의 친척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 전통적인 풍습이다. 이때 신랑이 이댁의 처녀를 흠뻑했다는 식으로 신랑의 발을 묶고 거꾸로 들어서 발바닥을 때리면서 신부나 장모로부터 더 맛있는 음식을 얻어내려는 등의 짓궂은 장난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결혼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연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있는 풍습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 5. 맺는 말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 세계는 지금까지 바깥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회과학 중에서도 참여관찰에 의거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인류학적인 연구에서는 총련의 내부자였던 소니아 량(Ryang, 199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총련계 조선인의 사회화 과정을 직접 체험한 량 교수가 조선학교에서의 언어교육 및 언어정책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총련계 조선인 사회를 분석한 이 연구는 실로 이정표적인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량 교수의 연구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 및 측면에서 총련계 조선인 사회를 연구하는 데에 지침서 역할을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외부자의 심층적인 참여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대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문화과정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자본주의 일본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총련계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후자를 전자의 더 넓은 사회로부터 구분 짓는 문화적인 경계가 필수적이었다. 이런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양자간의 전면적인 접촉으로 인한 문화변동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하나의 통합된

민족 집단으로서의 총련계 재일조선인으로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하나의 통합된 민족 집단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데에 기여한 기제로서의 분회조직 및 분회활동, 그리고 민족운동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민족교육과 민족결혼에 초점을 모았다.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분회는 총련 사람들을 기존의 캠프 속에 남아 있게 하는 말단의 세포 조직이다. 60년대와 70년대의 뜨거웠던 '북조선 귀환'의 꿈이 산산이 깨어져버렸고, 총련의 리더십마저 2세와 3세로 이어지면서 약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차 총련의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총련은 이들의 이탈을 억제할만한 대안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분회사업들은 총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강화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업이 총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분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민족의식'에만 호소함으로써 이들은 조직의 네트워크 속에 묶어두거나 새로이 편입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은 지금까지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총련 조직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은 거의 모두가 조선학교들에서 민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조선학교가 있었기에 총련 사람들이 우리말을 그나마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더 넓게는 민족문화를 이 정도로 이어 갈 수 있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교실 파괴,' '학교 파괴,' '교육 붕괴' 등이 일본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조선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의 이상이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 간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양자간에 인정이 메마른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이 학생들이 앞으로 직면해 나가야 할 일본 사회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총련계 재일조선인들로 하여금 민족교육의 캠프를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민족결혼의 이상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점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국 민족운동이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일동포 1세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의 결혼관 사이에 점차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1세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본 태생의 젊은 세대는 결혼에서만은 굳이 '민족'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 인과의 결혼이 늘어갈수록 재일조선인의 민족으로서의 통합성은 희석될 수밖에 없기에 총련 조직은 분회활동을 통해서 사활을 건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동포결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와 화상 선보기와 같은 첨단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결혼에서도 민족문화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교육현장의 교과목 내용에서도 민속놀이나 전통 설화가 등장하고, 결혼식까지의 과정이나 약혼식 및 결혼식 순서([부록-1]과 [부록-2] 참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현대 한국사회에서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점은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여전히 전통의 연속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조의성(趙義成)(1999), “재일동포”, <http://www.tufs.ac.jp/ts/personal/choes/etc/jaeil/Ni ndex.html>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京都大學教育學部 比較教育學研究室(동경대학교교육학부 비교교육학연구실)(1990), 《在日韓國 朝鮮人の民族教育意識》, 明石書店.

朴三石(박삼석)(1997), 《日本のなかの朝鮮學校: 21世紀にはばたく》, 朝鮮青年社.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會(2001),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 社會評論社.

ほるもん文化編集委員會(1993), 《在日朝鮮人揺れる家族模様》, 新幹社.

『총련 비디오』 시리즈(1993)

『조선신보』

동포결혼상담소 <http://www.kyoron.net>

사카이조선초급학교 <http://kita-osaka.co.jp/funan/hackyo/8gou.html>

재일한인회 <http://www.haninhe.com>

조총련 <http://www.chongryon.com>

[부록-1]: 결혼식까지의 과정: 지침서(<http://www.kyoron.net/body/tejyun.htm>)

결혼식 계획:

6~4개월 전:

- \* 중매인 의뢰.
- \* 약혼·봉채[結納]: 최근에는 약식으로 약혼식과 봉채를 동시에 행하기도 한다.
- \* 결혼식 플랜: 택일, 형식, 예산 등 검토.
- \* 식장 결정 및 예약.
- \* 결혼식에 입을 예복과 갈아입을 옷 플래닝.

3개월 전:

- \* 결혼식에 입을 예복 결정: 주문하는 경우 빨리 의뢰 대여하는 경우도 이때 예약.
- \* 초대할 사람 명단 작성: 식의 규모에 따라 양가 의논해서 결정.

2개월 전:

- \* 청첩장 발송: 결혼식 2주전까지는 답장이 오도록 한다.
- \* 식장과의 예약 확인.
- \* 주례 및 사회자 의뢰: 결혼식 및 피로연 진행 내용에 대해 사전 조율.

1개월 전:

- \* 식장과의 사전 조율: 요리, 연출, 사진 등 세부적인 부분 점검.
- \* 피로연 협력자에게 의뢰: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회계, 접수, 대반 등 의뢰를 점검.
- \* 스핏치 의뢰.
- \* 메이크업 의뢰: 부케(신부용), 부토니아(신랑용) 등도 이때 발주.



\* 출석자수 확인과 좌석 결정.

20일~10일 전:

\* 예복과 갈아입을 의상을 입어보고 점검.

\* 선서문 작성: 자신이 작성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지를 결정.

\* 출석자 최종 확인: 청첩장 회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화로 연락, 출석자수를 최종 확인한다.

1주일 전:

\* 식장 최종 점검.

\* 주례, 사회자,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과의 최종 점검.

\* 출석자 명단과 좌석의 순서를 식장에 제출.

3일 전:

\* 당일의 의상을 점검: 식후에 갈아입을 옷도 정해 놓는다.

\* 각 역할 담당과 예약을 최종 확인.

\* 뒷바라지를 해줄 분에게 줄 사례금 봉투를 준비: 당일 몇 사람의 도움을 받을 지 정확히 모르니, 약간 많게 준비.

결혼식 전날:

\* 예복, 갈아입을 의상 등을 최종 점검.

\* 당일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체크: 당일 필요한 품목을 점검.

\* 머리, 손발을 손질.

\* 결혼 반지, 선서문 확인.

결혼식 당일:

\*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한다.

\* 양친과 가족에 인사.

\* 대기실에서 먹을 것을 준비: 오니기리나 샌드위치 등.

\* 혼인신고서, 외국인등록 등의 수속.

생활 계획:

6~4개월 전:

- \* 신혼여행 플래닝.
- \* 신혼 살림 준비: 주거와 비용에 대한 상세한 의논.
- \* 가구와 살림 도구의 목록 작성.

3개월 전:

- \* 직장에 보고: 상사에게 결혼을 알리고, 휴가원이나 퇴직원을 제출.
- \* 신혼여행 계획을 세운다: 기간과 장소를 결정. 해외의 경우 수속이 복잡하니 서두는 것이 좋겠다.
- \* 신혼살림을 할 집을 결정.

2개월 전:

- \* 가구와 살림 도구 구입: 주택의 크기를 고려해서 큰 것부터 발주.

1개월 전:

- \* 생활필수품 구입.
- \* 늘 곁에 두고 쓰는 물건들 정리: 이사할 물건들을 포장.

20일~10일 전:

- \* 신혼살림을 할 주택 최종 체크: 필요한 물건 들을 점검.
- \* 신혼여행에 가져갈 소지품들 점검.
- \* 휴가계 제출.

1주일 전:

- \* 새집으로 이사짐 발송.
- \* 새집의 수도, 가스, 전화 등 점검.
- \* 여행대리점에 최종 확인: 교통편 티켓과 숙박 예약 등을 확인.

3일전:

- \* 가족과의 이별 파티.
- \* 새집의 정리 및 정돈: 바로 먹을 식품이나 써지 않을 식품류 등 구입.

결혼식 전날:

- \* 여행용품 최종 체크.
- \* 수면을 충분히 취해놓는다.
- \* 재입국허가증, 여권 재확인.

[부록-2]: 약혼식 및 결혼식 순서(<http://www.kyoron.net/body/program.htm>)

약혼식과 봉채[結納]: 본래 약혼식과 봉채의 의식은 별도로 치루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동시에 행하는 사례가 많다.

- \* 개식 선언.
- \* 약력 소개.
- \* 기념품 교환: 신랑 쪽에선 반지, 신부 쪽에선 시계, 만년필 등.
- \* 약혼 선언.
- \* 축배.
- \* 양가 가족 소개.
- \* 납폐품 전달: 신랑 쪽이 목록을 읽는다.
- \* 회식.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납폐(納弊)'를 '봉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결혼식과 식순:

- \* 개식 선언: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
- \* 신랑·신부 입장: 신랑·신부가 대반과 함께 입장('대반': 도우미에 해당하는 사람).

- \* 약력 소개: 생년월일, 출생지, 고향, 학력 등을 소개.
- \* 선언문 낭독: 신랑이 낭독한 후, 신랑·신부가 서명한다.
- \* 성혼 선언: 서명을 받은 주례가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한다.
- \* 기념품 교환.
- \* 주례의 인사.
- \* 축사: 신랑·신부 양측이 각기 한명씩 하는 것이 일반적.
- \* 양가 대표 인사: 가족과 친족을 대표하여 한명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 \* 축배: 연장자가 축배를 제안한다.
- \* 패식 선언과 신랑·신부의 퇴장.

피로연 식순:

- \* 신랑·신부 입장.
- \* 개회사: 결혼식의 사회자와 틀리는 경우가 많다.
- \* 식사와 환담.
- \* 축전 소개: 신랑·신부 각기 한 통씩 대표로 소개.
- \* 축하의 노래: 은사, 우인, 동창생, 직장 동료 등의 축하 노래.
- \* 신랑·신부의 노래.
- \* 꽃다발 증정: 신랑·신부가 각기 상대방 모친에게 꽃다발을 증정.
- \* 폐회사.
- \* 내빈 마중: 신랑·신부와 양친이 출구 부근에 나와 연회장을 떠나는 내빈들  
    께 인사.

## The Life World of the North Koreans in Japan: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ee, Mun-Woong\*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various aspects of life world of the North Koreans in Japan, which has been so far little known to the outside world. The North Korean society in Japan does not open its door widely, so that the outsiders could approach to their actual lifeways with ease. For the understanding on the North Koreans in Japan, the researcher has tried to reconstruct their life world by compiling data from various sources which have been scattered widely.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has conducted his fieldwork in Osaka, Japan, for 3 months from December of 2001 through March of 2002. Since he had a previous experience of fieldwork on the acculturation among Koreans in Japan, in Ikuno District of Osaka which is the biggest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Japan, he is more or less familiar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this area. He has mobilized the human networks established during the previous fieldwork in order to contact the North Korean informants for the present study. Consider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which have contributed in reproducing the North Korean communities in Japan, he has attempted to focus on the operation of the 'Choson Hakkyo', North Korean schools. Fortunately, he was able to conduct an intensive fieldwork at a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in Osaka.

In order to get settled in the host society of Japan, it wa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s in Japan to establish the firm cultural boundary-maintaining mechanisms armed with the socialist ideology, by which they are able to identify themselves within the Japanese societ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has focused on the various socialist organizations and its activities related to indoctrination, ethnic education, and ethnic

marriages as the important mechanism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communities in Japan, while maintaining integrated ethnic groups.

More North Koreans,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have now seriously concerned in adjusting to the Japanese lifeway, beyond the boundary of the North Korean ethnic boundary. The North Korean community, however, could not able to provide the proper alternatives which are able to restrain their breaking-away.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socialist organizations had tried to revitalize their indoctrination programs. And the ethnic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schools had played the pivotal role in supporting the North Korean communities in Japan. The elites and leadership of the North Korean communities are almost without exception the graduates of the North Korean schools. With the ethnic education, the North Koreans in Japan could speak in Korean, and they have been able to maintain their ethnic culture.

As the North Korean communities get older, it is now considered inevitable that the ideal of so-called 'ethnic marriage', or getting married with the same North Koreans, has been gradually weakening.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s feel frustrating about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young generation born in Japan and themselves in their view on marriage. Increasingly, the young generation, however, seems to find no need to stick to the 'ethnic' at least in their marriage.

---

\* Professor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lee95@snu.ac.kr